

## -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 발굴을 위한 - 2013 장성군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 기 간 : 2013. 5. 5.(화) ~ 2013. 5. 10.(일) <6일간>
- 연수국가 : 일본(규슈)
- 연수목적 : 농촌 마을 방문 체험 및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 발굴
- 연수형태 : 의원 및 본청 직원 합동 연수
- 인수인원 : 13명(의원2, 공무원11)



장 성 군 의 회  
JANGSEONG-GUN COUNCIL

# 목 차

## 제1장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1
2. 연수일정 .....	1
3. 연수명단 .....	5

## 제2장 방문국가개요

1. 일반현황 .....	6
2. 자연환경 .....	7
3. 정치 .....	10
4. 경제 .....	17
5. 기타분야 .....	21

## 제3장 연수내용

1. 모모찌 해변 .....	25
2. 부도우바타 .....	26
3. 사가현청 .....	29

4. 구기노무라 .....	33
5. 야스라기 교류관 .....	35
6. 아소산 .....	38
7. 미치노에키 .....	40
8. 우스키시 토양만들기 .....	43
9. 노츠 중앙 공민관 .....	45
10. 킷쇼무상 무라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	47
11. 유후인 마을 .....	50
12. 마메다마치 .....	52
13. 히비키노 사토 .....	55

## 제4장 연수후기

1. 주민이 하나되는 농촌의 미래 .....	58
- 장성군의회 의원 김 상 복 -	
2. 생산과 유통이 하나되는 농촌으로 .....	60
- 장성군의회 의원 임 동 섭 -	
3. 지역과 산업에 상생의 미래를 꿈꾸며 .....	62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송 창 석 -	

## 1. 연수 목적

- 시장 개방의 압력하에 있는 생산 중심의 우리 농업 현실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농촌 산업의 다변화를 통하여 개방 압력을 슬기롭게 대처해 낸 이웃의 선진지를 견학하여 지속 발전가능한 미래형 농촌 발전 모델을 발굴

## 2. 연수 일정

- 연수기간 : 2013. 3. 5.(화) ~ 3. 10.(일) <6일간>
- 연수국가 : 일본(규슈)
- 연수분야 : 선진 농촌 마을 방문·체험 및 시설 견학 등
- 연수인원 : 13명
  - 의원 : 2명
  - 공무원 : 11명
- 주요 방문지
  - 부도우바타 방문 : 후쿠오카
    - '산지에 마을을 담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업을 사랑하는 5명의 여성에 의하여 운영되어지는 농산물 직판소 부도우바타 견학
  - 사가현청 : 사가
    - 현의 주요 농산품을 선정,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농촌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가는 지자체의 노력모델 견학

- 구기노무라 소바 연수센터 방문 : 구기노무라
  - 메밀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에 성공, 빈농인 마을을 발전시킨 사례에 관한 브리핑 및 메밀국수 제작 체험
- 야스라기 교류관 방문 : 아소
  - 지역 폐교를 활용, 숙박 및 연수 시설로 이용한 도농교류의 거점 시설이 되고 있는 아소시 나미노고원 야스라기 교류관 견학
- 미치노에키 견학 : 아사시
  - 지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며 지역 교류 촉진 및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치노에키 견학
- 우스키 토양만들기 견학 : 유기농 퇴비 생산공장
  - 초목 부산물 및 돼지 분뇨를 이용하여 유기농 농업의 확대를 위한 시차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유기농 퇴비 생산공장 견학
- 공민관 방문 : 오이타
  - 다양한 교육, 예술, 과학, 문화 활동 등을 통해서 생활문화 증진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기능적, 지역중심적 생활문화센터인 공민관에 관한 브리핑
-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방문 : 우스키
  - 도농교류를 통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성공마을 사례인 우스키에 관한 브리핑
- 미치노에키 견학 : 유후인
  - 지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며 지역 교류 촉진 및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미치노에키 견학

- **유후인 마을 방문 : 유후인**
  - 농촌 에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지역 혁신 및 주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아름다운 전원풍경, 농법생산 과정을 지켜내면서 청정 이미지를 구축,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유후인 마을 시찰
- **아지무 와인 공방 방문 : 오오이타**
  - 아지무 마을에서 생산된 포도를 이용하여 와인을 생산·판매하여 지역 농업에 활력을 주고 있는 아지무 와인 공방 방문
- **마치노에키 견학 : 오오이타**
  - 지방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며 지역 교류 촉진 및 지역 활성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마치노에키 견학
- **마메다마치 방문 : 오야마**
  - 1980년대부터 주민주도형으로 전통을 복원하는 운동을 펼쳐 2004년 전통보전지역으로 국가지정 되었으며, 2010년 외국인 10만명, 내국인 50만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변신한 마메다마치에 관한 브리핑
- **농가 레스토랑 방문 : 오야마**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농가 레스토랑 방문
- **히비키노 사토 견학 : 오야마**
  - 오이타현 일촌일품의 대명사로 매실주 공장, 특산품 판매장, 온천 체험교류관을 운영하고 있는 히비키노 사토 견학

연수 일정표

월일 (요일)	지역	시간	교통편	업무수행 내용	비고
3/5 (화)	장성	03:30	버스	▶ 장성 → 부산 이동	
	부산	09:15	항공	▶ 부산 → 후쿠오카 이동	
	후쿠오카	10:05	전용버스	▶ 모모찌 해변(인공해변) 방문	
		13:00	"	▶ 도농 교류 거점 시설 '부도우버타' 방문	
	사가	15:00	"	▶ 사가현청 방문	
3/6 (수)	구기노무라	09:00	전용버스	▶ 구기노무라 방문	
	아소	13:00	"	▶ 나미노고원 야스라기 교류관 방문	
3/7 (목)	오이타	09:00	전용버스	▶ 아소산 견학	
		12:00	"	▶ 미치노에키(아사시) 방문	
	우스키	14:00	"	▶ 유기농 퇴비 생산공장 방문	
		16:00	"	▶ 노츠 중앙 공민관 방문	
		17:30	"	▶ 우스키시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방문	
3/8 (금)	유후인	09:00	전용버스	▶ 미치노에키(유후인) 방문	
		10:30	"	▶ 유후인 마을 방문	
		14:00	"	▶ 아지무 포도 공방 방문	
		16:00	"	▶ 마치노에키(오오이타) 방문	
	벳부	17:00	"	▶ 유노사또 방문	
3/9 (토)	오야마	09:00	전용버스	▶ 마메다마치 방문	
		12:00	"	▶ 농가 레스토랑 방문	
		14:00	"	▶ 히비키노 사토 방문	
3/10 (일)	후쿠오카	11:05	항공	▶ 후쿠오카 → 부산 이동	
	부산	12:00	버스	▶ 부산 → 장성 이동	

### 3. 연수 명단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성별	비고
1	장성군의회	의원	김○○	남	
2	장성군의회	의원	임○○	남	
3	총무과	별정6급	변○○	남	
4	환경보호과	보건7급	최○○	여	
5	친환경농정과	행정6급	박○○	남	
6	친환경농정과	농업6급	김○○	남	
7	지역경제과	행정6급	류○○	남	
8	미래전략사업단	시설7급	김○○	남	
9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강○○	남	
10	장성읍	행정7급	정○○	여	
11	황룡면	농업7급	최○○	여	
12	서삼면	행정5급	공○○	남	
13	의회사무과	행정7급	송○○	남	






## II 방문국 개요

※ 개요에 대한 정보는 위키백과와 가이드의 설명을 참조하였음.

### 1. 일반현황

 **일본** 또는 **일본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37만 7835 km<sup>2</sup>인데 이는 노르웨이(스발바르 제도와 얀마옌을 포함한 경우)보다 작으며 독일보다 크다. 면적 순으로는 세계 61위이다. 6,85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이며 이 중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등의 네 곳의 섬이 일본 전체 면적의 97%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섬들이 화산 활동을 통해 생겨났다. 일본의 인구는 약 1억 2,800만 명으로, 세계에서 열 번째로 많다. 사실상의 수도인 도쿄 도를 둘러싼 현들(가나가와 현, 사이타마 현, 지바 현, 이바라키 현, 도치기 현, 군마 현)을 포함하는 수도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트로폴리스 형태로 이 지역에만 약 4,00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1945년 포츠담 선언에 서명한 이후 1947년에 제정·시행된 일본국 헌법에 의해 법적으로 성립된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이 제정되고 일본은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상징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하는 일본 천황과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참의원·중의원으로 구성되는 국회가 공존하고 있다. 현재의 천황은 아키히토 천황, 국회의 집권당은 자유민주당이며 총리는 아베 신조이다.

일본은 대표적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인간개발지수는 2011년 기준 세계 12위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일본은 또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G8에 들어가는 유일한 국가이며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 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비록 일본은 헌법에 따라 군대 및 교전권을 포기하였으나 국토의 방위와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위대는 현대적이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 연합 및 세계 보건 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영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균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대출자 초봉은 2010년 현재 약 235만엔으로, G8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으며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 규슈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며 세계의 섬 가운데 36번째로 크다. 혼슈, 시코쿠, 홋카이도와 함께 일본 열도를 대표하는 섬의 하나다. 후쿠오카 현, 사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오이타 현,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의 7 현이 설치되어 있다. 규슈 지방은 일본 본토 남단에 위치하는 규슈를 중심으로 한 지방이다. 규슈 지방이라고 할 때, 위 7개 현에 류큐 제도의 오키나와 현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 2. 자연환경(지리 및 기후)

### ● 일본의 지리

일본 영토의 범위는 동아시아 동쪽에 길이 3,000여km에 활 모양으로 걸쳐져 있는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를 포함한다. 일본의 최동단은 도쿄 도 미나미토리 섬, 서단은 오키나와 현 요나구니 섬, 남단은 도쿄 도 오키노토리 섬, 북단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홋카이도의 벤텐 섬이다.

일본은 아시아 대륙 연변(沿邊)에 있으며 일본의 국토 면적은 약 37만 8천 km<sup>2</sup>이고 이는 지구 표면적의 0.07%, 세계 육지 면적의 0.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는 한반도의 약 1.7배이고 말레이시아와 독일보다는 크며 스발바르 제

도를 포함한 노르웨이보다는 작다. 주로 홋카이도·혼슈·시코쿠·규슈의 4섬과 그 속도(屬島) 및 이즈 제도·오가사와라 제도·난세이 제도로 이뤄져 있다.

일본 열도에는 몇 줄기의 화산맥이 뻗어 있기 때문에 지형의 기복이 심하다. 강은 짧고 급류인 경우가 많으며 해안선은 보통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또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계 화산의 10%가 일본 열도에 있다. 일본 열도는 지진 다발 지대이기도 해서 1923년에 일어난 간토 대지진, 1995년에 일어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나 2011년에 일어난 규모 9.0의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의 67%는 산지이고 대부분은 숲으로 뒤덮여 있으며 농지는 14%, 택지는 3%, 공업용지는 0.4% 정도이다.

## 일본의 기후

난세이 제도를 포함한 일본 열도는 남북으로 5,000km에 이르며 냉대 기후에서 열대 기후까지 걸쳐있는 데다가 복잡한 지형과 해류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기후의 차이가 현저하다.

연평균 기온은 남쪽 오키나와 현의 나하 시가 섭씨 22.7도를 기록하고 또 야에야마 제도의 이시가키 섬은 섭씨 24도로서 열대 우림 기후에 속한다, 규슈 지방의 가고시마 시는 섭씨 18.3도, 오사카 시는 섭씨 16.5도, 도쿄 도의 구 지역은 섭씨 15.9도이다 북쪽 홋카이도의 네무로 시가 섭씨 6.1도로 최저를 기록한다.

그러나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현의 야에야마 제도, 도쿄 도의 오키노토리 섬, 미나미토리 섬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은 온대 기후에 속해 온난한 기후이고 사계절 구분이 뚜렷하다.

태평양 연안 지대는 여름이면 남동 계절풍이 불어 매우 무덥고, 겨울에

는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아진다. 한편 동해 쪽에서는 겨울에 시베리아 계 절풍으로 인한 강설이 많아 니가타 현을 포함한 호쿠리쿠 지방은 세계적인 다설 지대로 손꼽혀 4~5m에 이르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다.

홋카이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6월 초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고온다습한 장마가 내리며 8월부터 10월에 걸쳐 일본 열도 남서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풍수해의 대부분을 초래한다.

일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일본 열도의 특성 상 봄과 가을이 오는 시기가 다른데 특히 봄이 오는 시기를 알려주는 지표인 벚꽃은 오키나와에서는 보통 1월 말에 피고, 홋카이도에서는 5월 말에 개화하기 때문에 "벚꽃 전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가을 시기의 지표인 단풍의 경우는 홋카이도 방면에서 제일 먼저 생겨 오키나와 방면으로 갈수록 점점 늦게 생긴다.

## 규슈의 지리

중앙에 규슈 산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 중핵을 이루는 아소 산은 동서 18km, 남북 25km에도 미치는 세계 최대급의 칼데라를 가진다. 규슈의 지형은 크고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북부는 비교적 완만한 산지, 남부는 백악기로부터 제 3기에 걸쳐 생성된 부가체이기 때문에 북부와는 완전히 다른 지질구조이고 비교적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졌다. 중부는 수십만년 전까지 세토 내해와 연결된 바다로 인해 분리되어 있었는데, 아소 산의 몇 차례에 걸친 분화로 생겨난 용암으로 메워져 하나의 섬이 되었다. 이로 인해 오이타 현과 구마모토 현에 온천이 많이 생겼고 일본 전국에서 인기 있는 대학생 MT 장소에 오이타 현, 구마모토 현, 미야자키 현 이상 3현을 꼽고 있다.

## ● 규슈의 기후

규슈는 일본의 지역 가운데 오가사와라 제도에 이어 온난한 지역이다. 가고시마 현 아마미 제도 이남과 가고시마 현 다네가시마 이북의 지역 간의 기후는 크게 다르다.

가고시마 현 다네가시마 이북 지역의 여름은 따뜻하며 강수량이 많고 겨울은 추우며 강수량이 적다. 단 아소 산을 비롯한 규슈 산지의 고지대에서는 기온이 매우 낮고 적설도 많다. 단 혼슈와는 달리 폭설이 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

남부의 태평양 연안에 해당되는 오이타 현 남부, 미야자키 현, 가고시마 현 오스미 지방, 가고시마 현 다네가시마 지방은 여름에 강수량이 많고 태풍 피해도 잦다. 겨울에도 온난하고 강설이 적다.

후쿠오카 현 일대와 오이타 현 중북부는 시코쿠나 주고쿠 지방의 기후와 비슷하며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그 외 규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쿠오카 현 서부, 사가 현, 나가사키 현, 구마모토 현, 오이타 현 서부, 가고시마 현 사쓰마 지방은 겨울 강수량이 비교적 많다. 단 눈이 내리는 경우는 적는데, 한반도로 인해 눈구름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 3. 정치

### ● 일본의 정치

일본의 정치 체제는 군주인 천황과 헌법이 양립하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일본국 헌법에서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일본 국민들의 총의(總意)에 바탕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이 정하는 국사(國事)에 관한 행위만을 내각의 조언과 승인, 책임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총리와 내각의 임원들을 임명하거나 그 신임장에 인증하는 것, 최고재판소 장관을 임명하는 것, 국회를 소집하고 헌법 개정과 법률 및 정령, 조약을 공포하는 것 등으로 일본 천황이 국사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천황은 외교의례 상에서 일본의 국가 원수로 대우받고 있다. 현재 일본의 천황은 아키히토이며 1989년 즉위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덴노가 스스로 백제의 왕손이라고 한 것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입법 기관인 국회**는 헌법에서 명시된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나라의 유일한 입법 기관으로써 영국식 의원 내각제를 채용했기 때문에 수상의 지명권, 중의원의 내각 신임과 불신임의 의결권을 가진다. 국회는 양원제로 중의원 및 참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원은 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연정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었으나 2009년 9월 15일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의 자리를 탈환하였다.

**행정권**은 내각 총리대신을 장으로 하는 내각에 속하며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와 아울러 국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내각총리대신과 이하 내각총리대신이 임명권을 가지는 국무대신으로 조직되어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진다. 내각은 행정 사무 이외에 법률 집행, 외교 관계의 처리, 조약 체결, 예산 작성, 정령(政令) 지정을 비롯한 하급 입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러한 수행 상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 국무대신들을 책임자로 하는 12성(省)을 갖추고 있다.

**일본의 사법 기관**으로는 재판소가 있다. 최고재판소와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가정재판소, 간이재판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된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헌법과 이하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최고재판소의 법관은 내각의 지명을 받아 천황이 임명한다. 일본이 베트남과 협력하여 베트남의 법제를 정비하고 법률가 양성시스템을 선진국형으로 구축하여 지원한 사업은 현재까지 대단히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선거**는 국회의원,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각 수장과 의회의원은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만 20세 이상의 남녀 전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보통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참의원 의원 및 도도부현 지사는 만 30세, 그 외에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보통 양원 의원과 도도부현 지사 및 의회 의원들은 특정한 정당의 당원 또는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시정촌의 수장과 의회의원들은 무소속이거나 지역소규모 정당 소속인 경우가 많다.

한편 **일본의 주요 정당**은 오랫동안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은 55년 체제 이후 2009년까지 총리대신을 배출한 자유민주당이고,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은 민주당, 사민당, 공명당, 일본공산당이다.

**일본의 외교 관계**는 태평양 전쟁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년) 및 각국과의 배상·보상조약을 거쳐 재구축된 것이다.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하여 서방 각 국가들과 긴밀한 제휴를 해 가면서 반공주의, 경제중심주의 외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국제연합을 지원함으로써 평화로운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패전 이후, 1951년까지 주권을 상실하여 외교 자주권을 갖지 못하여 점령 기간 동안 점령국인 미국의 정책을 구현하는 선에서 대외 정책이 실시되어 왔다.

그 후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서 소비에트 연방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조인 거부가 이루어진 가운데 미일 강화조약과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중화민국과 중일조약이 조인되어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외교권을 회복하게 된다.

1955년에는 GATT에 가맹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경제 정책을 취하는 선진 공업 국가들 중에서 점차 중요한 대외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195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교를 회복함과 동시에 국제 연합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에 복귀하게 되고 거의 모든 독립국과 국교를 맺고 외교를 행하고 있다. 다음 해에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국제 연합 중심주의,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라는 외교 3원칙을 발표하였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아시아 각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서양을 비롯해 세계 각국과 국교를 맺었다. 일본은 전 세계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현재 일본은 맹방인 미국과의 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참조).

태평양 전쟁 이후 체결된 조약에 따라 일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미국은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었다. 하지만 하토야마 내각 이후 미일 관계는 각종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웃한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서유럽 각국과의 관계도 깊다. 다만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러시아 등과 영토 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과는 센카쿠 열도(조어도 제도), 러시아



와는 쿠릴 열도 남부에 있는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 대한민국과는 독도를 둘러싸고 영토 문제를 안고 있다. 1965년에는 대한민국과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으며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치면서 국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는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등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일본은 국제 연합에 경제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지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브라질, 인도와 함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계속 시도하는 국가인 이른바 G4 국가에 속한다.

군사적으로는 한국 전쟁 당시 자위대를 후방에 파병한 것이 첫 활동이었으며, 2003년 이라크 침공 등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고대부터 각종 문화의 전파와 무역을 비롯한 많은 교류를 이어왔다. 특히 백제는 고대 일본에 중국 문물을 많이 전파하였다.

고려 시대 후반과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서는 쓰시마 섬과 규슈를 근거지로 하는 왜구(倭寇)가 각종 약탈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조선 시대 중반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등 중세와 근세기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기도 하였으나,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통신사 파견으로 다시 한일 교류가 재개되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에 등장한 일본 제국이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한 뒤 1945년까지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행하고 현대에도 일본의 여러 우익 인사들이 한국에 대한 정치적 도발을 주창하면서 양국의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은 독도 분쟁과 동해의 이름에 대

한 분쟁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2009년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성립한 이후 이루어진 양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더 악화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일본의 국방에** 관하여 살펴보면,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당시 항복의 조건으로 제국군을 해체시켰다. 따라서 일본국 헌법에 명시한 내용으로써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가지지 않을 것임을 밝혀왔다. 그 때문에 패전 후 군비(軍備) 및 교전권(交戰權)이 부인되었으나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어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어, 미국의 명령으로 일본의 기초적인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경찰예비대를 설치하였으며, 1952년 보안청으로 승격되고, 1954년 방위청이 설치되어 경찰예비대가 현재의 자위대가 됨으로써 사실상 군대로 변모하였다.

이후 일본은 3~5년 단위의 방위력 정비·증강 계획을 추진하여 1987년부터 방위비가 GNP 대비 1%를 초과하기 시작했는데 1970년대 말 첨단 군사장비의 자급 단계에 도달해 있었다. 이와 함께 극우계에서는 방위 개념의 확대를 기도함으로써 1980년대 말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한편으로 1947년 시행된 헌법에 따르면 국가 간의 교전권 포기과 어떠한 전력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재해석하여 자위대를 강화했다는 비판도 있다.

자위대는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로 나뉘며 헌법에 따라 징병이 아닌 자원으로 충원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최고 지휘권은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대신이 가지고 있지만 통상적 업무는 방위상에게 있다.

한편 자위대와 더불어 일본의 실질적인 군사적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주일 미군은 1945년 이후부터 일본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또한 주일 미군은

자위대에 지속적으로 미국산 무기를 제공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위대의 지나친 주일 미군 의존이나 기노완 후텐마 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일 미군의 재편 문제, 주일 미군이 일으키는 범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 일본의 행정구역

2006년 현재 일본의 행정구역은 1도(일본어:都, 도쿄 도), 1도(道, 홋카이도), 2부(府, 오사카 부와 교토 부), 43현(縣)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상으로 별도의 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별구로 정해진 경우를 빼 모든 도시는 모두 도도부현에 속하며 더 작은 행정 단위인 시정촌(市町村)과 도시와 시골을 몇 개씩 묶어 정리한 군이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정촌의 대대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도부현을 도주(道州) 형태로 바꾸는 것도 계속 논의되고 있다.

## ● 규슈의 행정구역

일본의 최서남단에 있는 규슈와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지방이다. 중국이나 한반도, 동남아시아와 가까워 고대부터 외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에도 시대 이후 쓰시마 섬은 조선과 일본 간의 외교를 담당하였고,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와 중국의 무역선이 많이 입항하였고, 히로시마와 더불어 원자 폭탄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기타큐슈 시에서 후쿠오카 시에 걸쳐있는 기타큐슈 공업 지대에 중공업, 화학공업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오키나와는 원래 류큐국의 중심지로 중국과 교역 활동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에도 시대에 사쓰마 번의 지배하에 들어갔으며 메이지 시대의 류큐 처분과 더불어 사실상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가 1972년 반환되었지만 현재까지 오키

나와의 대부분은 주일 미군의 기지로 활용되고 있어 산업을 위한 용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광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 기지가 차지하는 용지를 다시 환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 때문에 입장이 서로 다른 미국 및 현지 주민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 4. 경제

### 일본의 경제

1868년 이후 일본은 메이지 시대의 근대화와 더불어 경제적인 확장을 시도하였다. 당시 메이지 천황은 자유 시장 경제와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 이 시대에 일본인은 서양으로부터 많은 경제학자들을 고용하여 합리화된 경제 형태를 습득하였으며 오늘날 일본 유수의 기업들이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빨리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황폐화 된 경제를 빠른 속도로 회복함과 동시에 경제 규모가 크게 성장하였는데, 1960년대에는 10%, 1970년대에는 5%, 1980년대에는 4%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빠른 성장 기조는 1990년대에 이르러 둔화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에 낀 과도한 거품이 1989년을 정점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이에 따른 후유증으로 10년 이상의 오랜 불황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불황세는 정부의 노력으로 2000년 직전에 잠시 회복되었다가, 2000년의 밀레니엄 불황과 더불어 다시 크게 침체되었다. 이처럼 회복과 침체를 반복하던 일본 경제는 2005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5.5% (2006년 4분기)에 도달하면서 미국과 유럽 연합의 성장률을 따라잡는 데 이르렀다.

2009년, 일본은 세계에서 두번째의 경제 대국이며 일본의 공공 부채는 연간 국내총생산의 192%에 이른다. 일본의 산업 체계는 주로 공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으로 은행업, 부동산, 유통업, 교통업, 통신업, 건설업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일본은 대규모 산업 지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가전 제품, 철강, 비철금속, 선박, 화학 물질, 섬유 및 가공 식품 등이다. 또한 서비스업이 일본 연간 총생산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일본 총 인구의 약 6,700만명이 노동자이며, 실업률은 4%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노동시간 대비 일인당 국민 소득은 2007년 기준 세계 19위로, 이는 빅맥 지수가 잘 보여준다. 잘 알려진 일본의 기업으로는 토요타와 혼다, 닌텐도, 소니, 신일본제철, 도시바와 미쓰비시 등이 있다.

일본은 2008년 세계 기업환경평가에서 178개국 중 12위를 차지하였고, 국내총생산비 세율 또한 낮다. 이러한 형태의 일본식 자본주의는 어느 자본주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이레쓰(系列) 형태의 기업, 즉 재벌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긴 고용 기간과 직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를 기준으로 인사를 정하는 연공서열제 또한 전형적인 일본의 노동 환경이다. 일본의 기업들은 일명 '토요타 웨이'라는 경영 이념을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주들이 경영의 주체가 되는 주주 행동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들은 흔치 않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이러한 전통적인 경향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 일본은 자유방임주의적인 경향이 여전히 강하여 경제자유지수에 의하면 일본 경제는 아시아 30개국의 경제 중에서 5번째로 자유방임주의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수출 총액은 2005년 기준 4,210 달러로, 주요 수출 시장 비중은 미국이 22.8%로 제일 높으며 유럽 연합 14.5%, 중화인민공화국 14.3%, 대한민국

7.8%, 중화민국 6.8%, 홍콩 5.6%(2006년 기준) 순이다. 또한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 수단 및 장비, 가전 기기, 전자 기계와 화학 제품이다.

한편 일본의 주요 나라별 수입 비중은 중화인민공화국이 20.5%를 차지하여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 12%, 유럽 연합 10.3%, 사우디아라비아 6.4%, 아랍에미리트 5.5%, 오스트레일리아 4.8%, 대한민국 4.7%, 인도네시아 4.2%였다(2006년 기준). 주요 수입품은 기계 및 장비, 원유, 쇠고기를 주로 한 음식료, 화학 제품, 섬유품, 원자재이다.

일본의 사무 문화는 토속적인 사상과 융합하여 네마와시, 연공서열제, 샐러리맨 그리고 사무 여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의 주택 시장은 도시 지역에 한정된 토지 공급으로 특성지어진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내총생산의 집합체를 이루는 도시인 도쿄에서 두드러진다. 대부분의 일본인이 도시의 교외나 촌락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집집마다 분리된 주거 형태가 가장 많은 형태이다. 일본의 농수산업은 흔히 테라스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확량 또한 높는데, 일본 전 국토의 13%가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계 어획량은 중국의 뒤를 이어 거의 15%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2010년 이래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엔화의 지나친 강세도 수출을 위주로 하는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3년 새로 출범한 아베 내각은 유로 안정화 기구의 채권을 매입하는 등 계속해서 엔화량을 늘리고 있으나 이와 같은 아베 내각의 부양책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현상과 약 1,510엔에 이르는 국채, 침체된 내수 경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 ● 규슈의 경제

규슈의 제1차 산업은 농업, 어업, 임업이 균형있게 규슈 각 현에 넓게 분포하며 출하액도 많다. 온난한 기후 때문에 열대나 아열대 지역 원산의 고구마, 망고, 바나나 등의 생산도 많다.

규슈의 제2차 산업은 기타규슈 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철강, 석탄 공업이나 에너지 산업이 번성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사세보 중공 등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중공업도 번성하며 구루메 시(久留米市)에서는 고무 공업, 오무타 시나 노베오카 시 등에서는 화학공업이 발달했다. 근래 IT 산업의 성장에 의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생산량의 1할을 차지한다. 또 도요타 자동차, 닛산 자동차, 다이하쓰 공업, 혼다 등 자동차 회사들의 공장이 들어서 노비지방(濃尾地方, 나고야 일대)에 이은 국내의 자동차 제조 거점이 되었다.

규슈의 제3차 산업은 규슈 산업 생산액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후쿠오카 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도매업은 후쿠오카 시를 중심으로 규슈 전역을 배후 지역으로 한다. 후쿠오카 현의 도매업 연간 판매액은 전국 4위이며 규슈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국 은행은 적은 대신 각 현별로 지방은행이 존재한다. IT 관련 서비스업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후쿠오카에 소재한다.

규슈지역 역내 총생산은 후쿠오카 현이 18조 840억엔으로 제일 높으며 그 뒤를 구마모토 현(5조 708억엔), 가고시마 현(5조 357억엔), 오이타 현(4조 473억엔), 나가사키 현(4조 379억엔), 미야자키 현(3조 560억엔), 사가 현(2조 935억엔)의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사가의 해외무역은 위치적으로 한반도나 중국, 동남아시아에 가까워, 아시아와의 무역이나 수출입이 번성하다. 후쿠오카와 나가사키 일대에서는 오사카보다 한국의 부산이 가까우며 도쿄보다도 서울이 더 가깝다.

## 5. 기타분야

### ● 일본의 사회

일본의 인구는 2006년 기준 1억 2800만명으로 인구의 70% 정도가 간토 남부에서 규슈 북부에 걸친 태평양 연안에 거주한다.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 민족으로는 류큐인, 아이누족, 율타족, 니브히족 등이 있는데, 계속된 차별을 받아온 류큐인은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일본 편입 이후 재독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누족은 적극적인 문화 회복 활동을 통해 일본 국회에서 선주민 자격을 인정받았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9년 7월을 기준으로 약 221만 7천명으로, 이는 전체 일본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이 중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중국계가 약 65만 5천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재일한국·조선인이 약 58만 9천명을 기록하였다. 이외 재일브라질인, 재일페루인 등도 있지만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영주자들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등록하여야만 하며 참정권 등은 주어지지 않지만, 최근 하토야마 내각은 재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2009년 기준 남성이 79.29세이며 여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86.05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의 평균 수명은 1985년 이후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인의 주된 사인은 1996년 조사에 의하면 암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심장병, 뇌졸중 등의 성인병과 자살, 교통사고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생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의학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사망률 또한 현저히 줄어들어 노인 계층이 증가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본인의 기대 수명은 2009년 기준 싱가포르와 더불어 약 82세 정도라고 발표하였다.



## ● 일본의 종교

일본에서는 헌법 3장 20조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국교(國敎)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의 행사 또한 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강제 종교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의 주된 종교들은 신토와 불교이며 일본인들의 90% 이상이 신토를 믿고 있다. 일본에서 종교는 생활의 일부로 섞여있으며, 여러 개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흔하다. 이런 경향은 결혼식은 교회나 성당에서 치르고 장례식은 불교식으로 치르는 생활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밖에 크리스티교의 분파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일본 성공회, 정교회, 개신교 등이 있는데, 개신교로는 1940년대에 일본 제국 정부의 주도로 여러 교파가 강제로 통폐합된 일본기독교단에서 비롯하여 일본 제국 패망 이후 갈라져나온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회, 구세군, 그리고 한국 개신교도들이 만든 재일대한기독교단과 여러 선교 단체들이 있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천리교, 불교에서 갈라져 나온 창가학회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1990년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슬람교가 들어왔지만, 아직 이슬람교 신자들은 소수이다. 일본에서는 2개 이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신앙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음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이나 신흥종교인 통일교도 납치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 일본의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 현대 학교의 개념이 일본에 첫 소개된 것은 1872년 메이지 유신 이후였다. 1947년 이후, 일본의 의무 교육 기간은 만6세부터 만15세까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이다. 의무 교육을 마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문부과학

성에 의하면 2005년 기준 대략 75.9%의 고등학생이 대학교, 단기 전문 대학교를 비롯한 상위 학교로 진학하였다.

일본의 교육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의 입학에 대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체계이다. 따라서 선호하는 대학이 편중되어 있는데, 그 중 도쿄 대학과 교토 대학이 최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심하다.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 학생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은 세계 6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의 교육 체계는 6-3-3-4제로,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되어 있다. 새 학기는 4월에 시작된다.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되는 영아 때부터 아이를 맡겨서 사회적인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탁아소(託兒所)와 같은 보육 시설이 있고, 대한민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같이 만 3세부터 본격적인 전문 교육 기관으로 문부과학성의 관리를 받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만 6~7세부터는 초등학교와 같은 개념인 소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 학원인 주쿠(塾) 등의 보충 학습, 심화 학습 등을 비롯한 사교육이 지나치게 성행하여 학교에서의 수업이 경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부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또 학교를 비롯한 사회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따돌림인 이지메도 문제가 되고 있어 등교 거부, 자살, 히키코모리, 오타쿠와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안을 위해 대한민국의 대안 학교와 동일한 개념인 프리스쿨과 같은 교육 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대학교는 4년제 대학인 '대학'과 2년제 대학인 단기 대학, 전문 학교가 있으며 4년제 일반 대학은 학부제, 2년제 단기 대학은 학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 ● 일본의 교통

일본의 교통의 특색은 육상·해상·항공을 막론하고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여객 및 화물의 수송이 특히 활발하며 이어 세토 내해·북규슈 지방에서 발달하고 있으나, 동해 쪽이라든가 홋카이도·도호쿠의 두 지방, 시코쿠와 규슈 남부의 교통은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하천 교통이 거의 없는 것이 결점이며 태풍이나 대설 혹은 지진에 의한 교통 장애도 적지 않으나 전체적인 교통망의 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여객 수송 수단으로 수송량이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이며 그 다음이 철도이다. 반면 항공기와 선박이 국내 수송을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1970년대에는 철도 수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 버스를 포함한 자동차 수송이 전체 국내 수송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환경 오염 문제와 더불어 철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하고 있다.

화물 수송량은 트럭을 포함한 자동차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과 항공기, 철도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제적인 수송에서는 여객에서는 항공기, 화물에서는 선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1. 모모치 해변

### ● 연수지 개요

모모치 해변은 후쿠오카시 사라와구에 위치한 길이 2.5km의 인공 해변으로 야후돔, 후쿠오카 타워 및 힐튼 시호크 호텔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심속의 해변이다. 시에서 시민을 위하여 조성하였으며, 해변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상도시 마리존에는 방문객을 위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고, 결혼식때만 문을 여는 이색적인 건물이 있다.

### ● 연수 소감

도심속에 조성된 인공해변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뿐만 아니라, 도심 관광에서 부족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해변에 일반인들을 유도할 수 있는 카페 등의 시설을 개인사업자가 설치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용율을 높이고 단순한 해변만으로는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충하고 있다. 주변 경관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모래에 별도의 처리하거나, 바닷물을 이용한 세척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발 및 의복에 모래가 묻어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의 해변으로서 주변에 미칠 수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또한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석판들을 설치하여 소액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함과 동시에 또한가지의 이벤트를 만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사진 1-1. 모모치 해변 전경



사진 1-2. 모모치해변과 해상도시 마리존



사진 1-3. 해변 공원 내 시설



사진 1-4. 해변 주변시설 벽면에 부착된 기부자 명단

● 도심 관광이 중심을 이루는 후쿠오카에 이러한 인공적 해변을 설치하여 여행의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입과 청결한 관리는 관광 상품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점으로 볼 수 있다. / 김○○ 의원

## 2. 부도우바타

### ● 연수지 개요

후쿠오카시 남구에 위치한 부도우바타(포도밭)는 1999년 6명의 여

성 농업인 3년동안 준비하여 설립한 농산물 직판장으로 일반적 일본의 지역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를 넘어서 산지의 제한없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신선류 및 반찬 등의 가공품을 판매하고 있다. 건물의 2층에는 커뮤니티 홀 등이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을 위한 요리교실, 농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연수 소감

부토우바타는 농산물 직판장으로써 판매장이 시작되는 11시가 가장 붐비는 시간이라 한다. 11시에 오픈하는 이유는 산지의 제품을 가장 가장 신선하게 판매하기위한 방법으로 모든 농산물은 당일 11시까지 납품되어 전시 판매 된다. 판매 물품은 우리주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적은 소포장 단위로 포장 판매되는 물건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판매방식은 소가족 중심의 도심주민들에게 유리한 판매방식으로 보인다.

직판장에 납품, 제품 포장, 물품 수거는 모두 농가에서 직접 하며, 당일 판매되고 남은 제품은 농가의 수거가 원칙이나 100%로 판매를 목표로 하는 매장의 정책으로 반찬, 도시락 등으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틈새 상품이 매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납품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은 전적으로 농가에 맞기고 있다. 매장에서 주변 다른 매장의 가격을 체크하여 농가에 조언을 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방식은 중간 유통단계가 없어진 구조에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가격결정 방식



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농가는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더욱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매장의 직원은 대부분 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시간(11시~18시)과 휴일휴무를 매장에서 보장해 주기 때문에 가사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근무여건을 지켜주려는 경영자의 고민으로 인하여 신선제품의 판매를 위해 판매시간을 연장하는 전략보다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부도우바타는 단순한 직판장의 역할뿐만 아닌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교육받은 커뮤니티 হল은 우리 같은 방문객의 교육뿐만 아니라 주변주민들을 위한 요리교습 및 귀농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위한 농업교육 등을 실시하여 단순한 직판장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었다.



사진 2-1 부도우바타 매장 전경



사진 2-2 매장내 소포장 제품들



사진 2-3 매장에서 만든 반찬과 도시락



사진 2-4 커뮤니티홀에서의 교육모습

● 부도우바타의 매니저 애가시라 씨가 생각하는 부도우바타의 성공 요건은 지역과 인간과의 공동체형성에 노력하고, 종업원들의 지식과 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하며, 농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교육의 지원이라 말한다. 사실 우리는 직판장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았고 더 고민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답변은 물건의 판매가 우선이 아니라 서비스의 판매가 우선이라는 의견의 제시해 준 것 같아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물론 일본은 직판장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직판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그 직판장의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나, 직판장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함께 도입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임○○ 의원

### 3. 사가현청

#### ● 연수지 개요

사가현은 일본 큐슈의 북서부에 있는 현으로 현청은 사가시에 위치



해 있다. 7시 37정 5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켄카니나다, 남쪽으로는 아리아케해에 면하며, 지형적으로 북부의 세부리 산지, 남부의 사가 평야, 서부의 구릉지 및 다라산지 등으로 나뉜다. 주산업은 농업이며, 관개수로망이 발달한 사가평야는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은 벼농사지대로 알려져 있다. 근래 쌀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감귤과 채소 재배 및 가축사육이 성행하고 있으며 재래공업으로는 아리타 도자기가 유명하다. 아리타 도자기는 임진왜란 때 한반도에서 끌려간 이참평이 아리타에서 백자광을 발견, 일본 최초로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굽기 시작하며 탄생했다.

## 연수 소감

사가현에서의 브리핑은 사가현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였으며 주로 농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사가현은 산업 중에 농업의 비중이 큰 현으로 우리농가들이 FTA의 여파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것과 같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협상이 시작되며 지역민들의 경영여건에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사가현에서는 몇몇의 중요 농산물의 특화를 유도하고 특산품과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고기, 딸기, 귤, 김, 정종의 고급화를 추진하여 상당부분 고가의 납품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정종의 경우, 지역 축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의 농촌 지원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주도의 사업추진을 들

수 있다. 현의 지원은 농가 및 지역과의 상담 및 아이디어 제공을 통한 방향제시에 집중하고 금전적인 지원은 최소화하여 자생력있는 제품과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정분야에 과도한 지원을 배제한 가능성을 기초한 자원의 균등지원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상품과 축제의 개발에 한가지 예로 카시마 주조장 투어리즘은 정종을 이용한 최초의 관광상품(사가현의 주장)으로 6개의 주조장의 이름이 새겨진 목판(6,000엔/장)을 판매하고 지역에 위치한 6개의 주조장을 방문하여 시음하고 선물용 미니어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목판에 각각의 주조장에서 찍어주는 도장을 받아 추첨하여 상품을 주는 이벤트로 겸하고 있어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이 행사를 통하여 주변에서 생산된 특산품들을 판매하는 행사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축제의 시작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정종이 IWC 2011에서 우승한데서 시작된다. 이 아이템을 지역 발전의 기초로 생각한 지역 주조장과 주민들은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어, 현에 지원요청을 하고 현은 여러 지역의 발전 가능 축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지원했다. 특이할 점은 현에서의 지원금은 다른 모든 지원 축제와 동일하게 지원하며 지원금의 비중은 25%(총 300만엔의 행사금액 중 70만엔 정도 지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현에서는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상담과 지역주민의 결속 및 행사의 아이디어 제공에 집중한 것이다. 이러한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성은 카시마 주조장 투어리즘의 2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3만명이 방문하게하는 쾌거를 만들었고, 현재는 자생가능한 지역 축제의 모델로 더욱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특산품 및 관광상품의 개발과정에서 살펴본 지역 개발의 방식은, 관의 보조금 중심 사업이 아닌 지역 스스로 가능성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방식이 진정 자생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최선의 방식이 생각이 들었다.



사진 3-1 마중나온 사가현 문화관광과 공무원



사진 3-2 사가현 문화관광과 브리핑 현장



사진 3-3 사가현 특산품 홍보물



사진 3-4 카시마 주조장 투어리즘 자료

● 사가현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식은 지역민이 노력한다면 생산에 기초한 산업도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역민의 발전에 대한 열망과 관공서의 아이디어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발전에 금전적 지원이 최선이 아닌, 가능성을 키워주는 정책이 우리군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일 것이다.

/ 김○○ 의원

#### 4. 구기노무라 소바연구센터

##### ● 연수지 개요

구기노무라 소바연구센터는 고지대에 위치한 산간지역으로 접근성 좋은 곳은 아니다. 그러나 메밀을 이용한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농업의 생존까지 이끌어낸 좋은 예이다.

구기노무라에는 11명의 정식직원이 있으며 메밀 소바 만들기 체험장 및 메밀 국수를 판매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간 방문객은 7천명 정도이고, 연간 수입은 1억 2천만엔 정도이다. 유한회사로 설립된 구기노무라는 설립초기 시설비 중 1억엔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20여년 동안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메밀의 50%(총 생산량 90톤 중 45톤)정도를 직접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메밀은 농협에서 전량 구매 하고 구기노무라에서는 농협을 통하여 메밀을 구입하고 있으며, 구기노무라에서 소비하지 못하는 메밀은 가공품이나 판매업체 납품을 통하여 전량 소비하고 있다.

또한 지역 행사로 매년 11월 신소바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특산물 홍보 및 관광행사로 활용하고 있고, 행사기간에 약 2,000명이 참가하고 있다.

##### ● 연수 소감

구기노무라 소바연구센터가 위치한 구기노 읍은 아소산 칼데라에

위치한 인구 2,700명 정도의 소도시로 구기노무라(유한회사)의 설립 전까지는 전적으로 농업에 의지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일찍부터 부락영농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쌀농업에 의존하여 작물전환도 늦었으며 기간 작물인 쌀농업도 노령화 및 후계자 양성에 실패하면서 지역 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구기노무라 설립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여 주변 산지를 개발을 통해 메밀을 생산을 확대, 판매함으로써 농업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다. 구기노무라는 단순한 소바체험장이 아닌 지역 농업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 하나의 사례인 것이다. 특히 이런 구기노무라의 설립에는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도 뒷받침되어 있다. 지역의 250농가가 메밀생산에 참여하고 있고 연간 90여톤의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중 50%는 구기노무라에서 소비하고 나머지는 가공품 및 판매업체의 납품을 통해 소비하는 등 지역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사진 4-1 구기노무라 소바연구센터 전경



사진 4-2 구기노무라 소바만들기 체험





사진 4-3 소바판매장에서 본 경관



사진 4-4 현장 브리핑

● 지역의 어려움을 이겨낸 좋은 사례이자 우리가 추구해야할 미래 농업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변화의 노력이 구기노무라의 설립에 밑바탕이 되고 있는 사실은 농촌의 변화의 시작은 농촌 자신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보여준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살린 회사가 설립되는 것이 농촌의 생존과 발전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느끼게 한다. 단지, 구기노무라는 유한회사로 이곳에서 발생하는 수익 자체가 농가에 직접 배분됨이 없는 점은 우리가 도입함에 있어 조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된다. / 임○○ 의원

## 5. 야스라기 교류관

### ● 연수지 개요

아소시로부터 위탁받아 (유)신락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스라기 교류관은 2002년도에 설립하여 총 5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폐교된 초등학교를 국가 및 현 등의 지원으로 내진설계 등을 통한 기초보강 및 숙박, 교류시설 확충 등의 시설보수를 통하여 연수시설로 개조하여 숙박 연수

및 지역 교류의 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그린투어리즘에 기초하여 음식 만들기 체험(소바 만들기 체험 등), 자연체험(고향체험 등), 농림업 체험(전통차 체험 등), 수공예품 체험(솔방울 공예체험 등)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체험연수 등을 이곳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자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이곳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교류관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도시민들의 체험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교류 활동 및 교육 등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내의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을 위한 요리 수업에서 시작된 농가 식당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어머니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음식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월 1회(둘째주 일요일)의 정기적인 운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참석 희망자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참석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 연수 소감

야스라기 교류관이 위치한 나미노 마을은 주변에 관광시설이 전혀 없었으나, '해발 700m이상의 고지대와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 편의와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체험 및 숙박이 가능한 교류관을 설립하면 어떨까'라는 주민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폐교를 활용한 다양한 국가 정책과 행정 담당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은 교류관을 설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곳의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은 농가들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원은 되지 못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교류관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운영의

형태는 지역구성원들이 지역 활성화의 중심을 교류관에 두고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운영의 성공에는 모치즈 키카츠야 교류관장의 노력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모치즈 키카츠야 교류관장은 이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지지 속에서 교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타지역 사람에게 주민들이 갖을 수 있는 이질감을 씻어내기 위한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류관 활성화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된다. 이러한 리더가 있을때 지역의 발전은 새로운 방향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사진 5-1 야스라기 교류관 전경



사진 5-2 체험시설(술가마)



사진 5-3 체험 시설(통나무 쪼개기)



사진 5-4 숙박시설



● 야스라기 교류관은 지역의 아이디어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유한회사에 위탁 운영되는 시설로 도시와 지역의 교류와 지역 소통의 창구로 이용되는 시설이다. 폐교와 그린투어리즘의 융합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새로운 지역 살리기의 모델로 우리지역에 농촌마을 살리기의 모델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는 지역민의 소득과 직접 연관성이 적다는 것과 시설 이용료(5,250엔/1인, 5인이상)가 높아 일반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우리가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 김○○ 의원

## 6. 아소산

### ● 연수지 개요

아소산은 높이 1,592m의 활화산으로 구마모토 · 오이타 2현(縣)에 걸쳐 있다. 세계 최대의 칼데라를 가지는 복식화산으로, 기리시마 화산대의 북단과 하쿠야마산 화산대가 마주치는 지점에 있다. 중앙화구의 나카가쿠산은 현재도 활동 중이다.

### ● 연수 소감

아소산 분화구는 일본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 명소이다. 특히 화산활동이 계속되어 들끓는 분화구는 찾는이에게 자연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장소인 것 같다. 이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일본의 모습에 다시 한번 대단함을 느낀다. 특히 관람 안내도를 통하여 관광객의 동선을 정확히 안내하고, 가스

농도 표시판은 관람객들에게 현재의 가스 농도를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있으며, 분화구 옆에 분화구와 반대방향으로 열려 있는 피난소를 설치하여 관람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본받을만하다 생각된다.



사진 6-1 아소산 분화구 전경



사진 6-2 아소산 관람 안내도



사진 6-3 유형 농도 알림판



사진 6-4 분화구 옆 피난소

● 아소산 분화구의 장엄한 경관은 보는이로 하여금 자연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하면서도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에서 일본 관광산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 김○○ 의원

## 7. 미치노에키

※ 이번 일본연수는 직판장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아사시 미치노에키, 유후인 미치노에키, 아지무 사토노에키 그리고 하다시 미즈베노사토(농가레스토랑) 등 총 4곳의 직판장을 방문하였다.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이곳들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 ● 연수지 개요

미치노에키는 '길에 있는 역'이라는 의미로 국토해양부의 주도로 국도변 10Km에 한곳씩 설치하여 운영되는 국가 주도의 직판장이다.(사토노에키는 지자체에서 지방도변에 설립) 이곳에는 주변 농가들이 소규모로 생산한 농산품 및 생산품들을 직접 납품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상당부분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소규모 농산물 생산자들이 등록하여 직접 세척, 포장, 납품 및 반품의 과정을 책임지며 판매장에서는 제품의 판매와 관리를 책임진다. 가격은 전적으로 농가에 의해 결정되며 납품 물품의 반품 또한 농가가 직접한다. 또한 이러한 미치노에키는 대부분 식당을 겸업하며 지역 농산품을 이용한 음식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농가 레스토랑 형태로 운영되는 식당도 있다. 우리가 방문한 곳 중 아지무 사토노에키의 경우에는 아지무 마을의 투자를 받아 개인이 설립한 곳으로 현재는 아지무 마을에 투자금을 상환하고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 ● 연수 소감

미치노에키는 과거 파밭마를 갈아타는 역의 개념과 직판장의 개념을 합한 새로운 형태의 판매장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유통은 대부분 공판장이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형태이나, 일본의 경우 이러한 미치노에키의 활성화 를 통하여 값싸고 품질좋은 물품을 저렴하고도 정당한 가격에 농가로부터 직접 공급받는다. 이러한 유통형태는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물류비로 인한 소비자가 상승과 높은 판매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가격에 물품을 납품하는 농가들의 손해에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역 농산품을 직접 사용한 식당을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개와 이윤 창출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미치노에 키의 독창적인 상품이 되어 찾는이로 하여금 같은 형태의 매장임에도 다 른 느낌을 갖게하는 새로운 경쟁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직판장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이곳에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농가에서 직접 세척, 포장 한다. 직거래 상품이라 할지라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의 차별화나 특별화가 필요한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포장지들이나 포장 아이템을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직판 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들의 구매욕구를 상승시켜, 직판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사진 7-1 미치노에키(아사시)



사진 7-2 미치노에키(아사시) 도시락





사진 7-3 미치노에키(아사시) 직판장 내부



사진 7-4 미치노에키(유후인) 판매 제품



사진 7-5 사토노에키(아지무) 판매 제품



사진 7-6 히다시 미즈베노사토의 농가레스토랑

● 미치노에키는 일본 직판장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것으로 인해 소규모 지역 농가가 생존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소규모 농가와 직거래를 통한 적정 가격의 결정은 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매우 이상적 구조라 생각된다. 특히, 아지무 사토노에키처럼 적정한 수익이 창출되어 소득이 보장된다면 운영자 및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우리군에 적용하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임○○ 의원

## 8. 우스키시 유기토양 만들기

### ● 연수지 개요

‘우스키시 유기토양 만들기’ 퇴비공장은 우스키 시에서 운영하는 퇴비공장으로 유기농의 활성화를 위한 시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퇴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초목부산물 80%, 돼지분뇨 20%)는 모두 농가에서 구입하여 활용하고 생산된 퇴비는 우스키시의 주민들만 사용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생산되는 퇴비 “우스키 꿈 퇴비”는 6개월의 발효, 숙성 기간을 거쳐 생산되어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이 최소화되어 유기토양의 형성에 좋은 퇴비라 한다. 또한 공장의 지붕에는 태양열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자체에서 사용되는 전력의 상당부분을 충당하고 있다.

### ● 연수 소감

‘우스키시 유기토양 만들기’ 퇴비공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만큼 농가에 대한 지원이 매우 확실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가에서 채취한 초목 부산물과 돈을 주고 처리해야하는 돼지분뇨를 공장에서 사들여 퇴비의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지역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시 주민으로 한정지어진 퇴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전산등록을 통하여 시의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등 지역민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공장 설치시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설득하고, 분뇨의 이송시에도 시에서 제공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없애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배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깊었다.





사진 8-1 우스키시 유기토양만들기 퇴비공장



사진 8-2 현장 브리핑



사진 8-3 원료(초목부산물) 투입



사진 8-4 원료(초목부산물) 분쇄



사진 8-5 원료(초목분쇄물 및 분뇨) 혼합



사진 8-6 발효 및 숙성



사진 8-7 퇴비 포장



사진 8-8 완제품

● ‘우스키시 유기토양 만들기’ 퇴비공장은 원료로 초목부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분뇨를 원료의 대부분으로 사용하는 우리지역의 실정과 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설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 서의 주민을 설득하고, 운영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관공서의 노력은 우리지역에 설치가 계획되고 있는 퇴비공장의 설립과정에 중요한 참 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초목부산물과 분뇨를 사들여 농가의 소득 을 보전하려는 시의 노력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자세라 생각된다. / 임○○ 의원

## 9. 노츠 중앙 공민관

### ● 연수지 개요

우스키시 노츠 중앙 공민관은 산하에 동일한 형태의 2개의 공민관을 둔 지방 공민관으로 지역의 아동부터 노인까지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부채춤, 홀라댄스 수업부터 어린이를 위한 체험교실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



관, 480석의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지방 평생교육의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매년 11월에 강당에서 각 수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발표회를 실시하여 교육 참가자들의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 연수 소감

공민관은 일본식 평생교육의 중심지로 지역의 교육과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여러 수업들을 운영하는데 있어 수업의 강의를 받지 않고 시설의 이용료(210엔/시간)만을 받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에게 대한 부담을 없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매년 1회 실시하는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자들의 적극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뒤에서 이야기할 우시키시 노츠마치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와 같은 많은 주민단체들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민들의 사회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9-1 우시키시 노츠 중앙 공민관



사진 9-2 공민관 현황 브리핑



사진 9-3 공민관 시설(도서관)



사진 9-4 공민관 시설(강당)

●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교육 및 사회 활동의 중심으로 만든 일본의 평생교육정책에 매우 놀라움을 느낀다. 이러한 시설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운영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러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만이 사용하는 대형 청사에 비출때 매우 훌륭하다 생각된다. 우리군에도 이러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충분히 있어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더 나은 문화생활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김○○ 의원

## 10. 킷초무상 무라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 ● 연수지 개요

우스키시 킷초무상 무라(킷초무씨 마을) 그린투어리즘 연구회는 2003년 농가의 부녀회가 모여 창립한 농촌민박 단체이다.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마을”을 테마로 현재 32농가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어울려 운영하는 단체로

현재까지 국가로의 지원은 거의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연수자가 민박할 가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숙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평범한 일본가정을 기초로 하고 멀리서 온 친척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점에서는 모든 민박 가정이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각각의 민박 가정에서 운영하는 테마체험은 농가 스스로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서 각각의 민박마다 체험활동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민박의 홍보를 위하여 지역 우화의 주인공인 '킷초무'라는 실존 인물을 활용하고 있었다.

### 연수 소감

우스키시 킷초무상 무라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에서 운영하는 민박은 우리가 그동안 접해왔던 민박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특히, 단순히 재우고 먹이는 공간이 아닌 방문객과 함께 대화하고 움직이는 동안 조금씩 정을 쌓아가고 다시금 찾고 싶다는 마음을 들게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투어리즘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특히, 각각의 농가마다 스스로 이벤트를 만들어 운영하는 모습에서는 적극적인 운영의지가 느껴졌다.

### 숙박 소감

우리가 숙박한 가정은 코다마 시즈카씨의 가정으로 따뜻한 인상이 가득한 가정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용한 아버지와 푸근한 어머니, 그리고 즐거운 웃음의 동생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의 하루밤이었다. 처음 도착해서 주인의 안내로 마을을 산책하



고, 세면을 마친 후 준비된 맛있는 저녁과 언어가 통하지 않아 조금은 어색했던 대화들. 그리고 우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 사진첩을 만들어주고 방명록에 인사말을 적으며 이곳을 방문했던 다른사람들의 흔적을 보는 묘한 기분. 마지막으로 아침에 방문했던 고목이 있는 작은 사찰. 모든 것이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추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하룻밤이었다.



사진 10-1 홍보 팸플릿



사진 10-2 공민관 벽에 그려진 키토무씨 그림



사진 10-3 민박 가정에서 제작한 사진첩



사진 10-4 민박 가정에서의 저녁식사

●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배움에 그친다면 우리의 그린투어리즘은 영원히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을 따라 잡지 못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은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홍보를 위한 아이디어의 개발, 숙박 가정 스스로의 테마의 개발, 단체 임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린투어리즘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신이 아닌까 생각된다. / 임○○ 의원

## 11. 유후인 마을

### ● 연수지 개요

1960년대 까지 낙후된 마을이었던 유후인은 댐 건설, 온천 리조트 건설, 골프장 건설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마을 주민들은 유후인의 정취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해치는 공사에 반대하고, 댐 건설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이와우 히데카시를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이 힘을 모아 '유후인 만들기'에 돌입하였다. 마을의 장년층과 청년층으로 구성된 마을가꾸기 조직의 노력과 행정의 독자적인 환경 조례 제정 등의 뒷받침을 통하여 연간 4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금의 유후인 마을에 이르렀다.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천천히 즐기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어 옛 것을 버리지 않고 관광자원화하고, 골목길 담장들은 가급적 나무울타리나 대나무로 설치하여 자연적 경관을 유지하는데 힘쓰고 있으며, 유후인의 관점에서 옛 것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지역의 옛

모습 살리기와는 다른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거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유후인 마을은 마을 자치조직이 운영하며, 상점은 지역민이면 누구나 가게 등을 열수 있는 기회를 주어 지역민의 소득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 ● 연수 소감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자’ 노력했던 많은 운동들로 인하여 과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언제나 개발을 우선하고, 소득을 우선하는 정책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옛것을 가꾸며 살아오고, 그것들로부터 소득을 얻는 유후인 마을이 주는 시사점은 크다 생각된다. 특히 유후인 마을만들기의 시작이 보상을 위한 투쟁이 아닌 마을사람들의 진정한 마을사랑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개발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진 11-1 유후인 마을



사진 11-2 거리의 인력거





사진 11-3 유후인 마을 중심에 위치한 금민호



사진 11-4 금민호 앞 샤갈 미술관을 배경으로

● 현대적인 편안함보다는 과거로부터의 편안함을 생각하게 되는 곳이었다.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주민들의 강한 의지가 지금의 유후인을 만들었으며, 자신들만의 의지로 과거를 그대로 현대에 옮겨낸 주민들의 노력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마을 만들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는 방문이었다. / 김○○ 의원

## 12. 마메다마치 전통마을

### ● 연수지 개요

마메다마치는 30년 전까지는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나이 많은 사람들만 남아 거리의 소점포와 소규모 농업으로 연명하듯 살아가는 마을이었다. 그러나 근대화로 상점가가 쇠퇴하고 역사와 문화가 담긴 마을 경관의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경관보존추진협의회가 구성되고 모두의 노력에 결과 연간 50만명이 방문하는 지금의 마메다마치 전통마을이 만들어 졌다. 마메다마치는 1647년 도시계획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가 정비된 후 형성된 마을의 모습을 그대

로 유지하여 현재의 전통거리로 이어 왔으며, 마을운동초기에 44개였던 소규모 상점은 현재 120여개로 운영되고 있다.

## ● 연수 소감

우리는 마을 회장인 이시마로씨로부터 마을 살리기운동 과정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회장님은 마을살리기의 3가지 조건으로 청년, 바보, 주변인을 들었다. 모든 조건이 중요하지만 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바보'의 중요성을 그분의 열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마을 살리기의 시작은 지역의 주민에게 자신의 지역에 대해 알게 하는 일로 시작되었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자기 마을에 대해서 모른다면 마을을 알리는데 있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홍보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 마을만의 방식으로 축제를 만들기로 협의했고, 에도시대의 천령지역(궁을 수비하는 사무라이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모습을 살려 '천령축제'를 시작하였다. 축제를 시작하기위해 여러 주민들과 시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시의회의 동의를 시작으로 축제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1회 축제에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에 성황리에 마감할 수 있었고 또 이런 모습을 본 '주변인'이었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축제가 끝나자 다시금 조용한 시골마을이 되어버린 모습에 주민들은 평소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만들고자 고민했고, 그래서 점차 상점들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들을 모으는데 어려움을 느낀 마을에서는 다시금 축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2월에서 3월에 열



리는 히나마쓰리(어린 여자아이들을 위한 전통행사)축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금의 마메다마치 전통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주민들의 힘으로 스스로 시작된 마을운동은 지역 발전에 중요한 모태가 되었고, 현재 천령축제나 히나마쓰리축제들은 주변의 기업들(호텔 등)의 후원이 이어질 정도의 축제로 성장하였다. 또한 마을을 떠나던 젊은 사람들도 마을의 성장에 힘입어 고향에 정착하기 시작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원동력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이시마로씨가 말하는 마을살리기 운동의 중요한 모체는 ‘하루에 한번 감동하기’에서 시작된다. 마을의 아름다움에 감동하고, 그 감동을 방문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으로 승화시켜야 마을 만들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감동이나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마을은 전통이 없는 현대적인 마을이 되어버린다고 말한다. 그는 “새로움과 역사가 공존하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이고, 향수란 과거를 지켜 도시화의 시대에 볼 수 없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다시한번 마을에 대한 감동의 중요성을 말한다.



사진 12-1 마메다마치 전통마을 거리



사진 12-2 마메다마치 브리핑(이시마로 회장)



사진 12-3 이시마로 회장의 오늘의 감동



사진 12-4 히나마쓰리 모형과 함께

●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전통마을을 한명의 주민으로써 그리고 주민들의 리더로써 마을을 만들어낸 이시마로 회장의 '하루에 한번씩 감동하라'라는 말은 많은 젊은이들이 마을을 떠나고 있는 우리 농촌 현실에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농촌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농촌을 떠나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 군의 마을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끌어줄 한명의 '바보'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 의원

### 13. 히미키노 사토

#### ● 연수지 개요

히비키노 사토는 지산지소 운동으로 행정에서 쌀을 심으라는 권유를 거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매실 등의 특산품 개발과 함께 더 나은 부가가치를 얻기위한 방법으로 1991년부터 가공품을 만들기 시

작했고, 2002년 각기관 및 단체, 개인의 출자로 설립된 농산물 가공, 제조 판매를 포함하는 산업관광회사인 지금의 히비키노 사토로 성장했다. 특히 이곳은 지역 특산품인 매실을 이용하여 가공품을 개발하고, 도시민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방문과 상품의 판매를 연계하는 구조를 유지하여 지역 농업과 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매실의 구입시 일본지역 농협과의 경쟁관계를 유지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매실을 적정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상품의 매실을 명품으로 가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시켰다. 현재는 연간 15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매실주를 포함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소와 레스토랑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연수 소감

히비키노 사토는 지역의 특산품을 성공적으로 상업화시켜 지역의 발전까지 연계시킨 좋은 마을기업 발전모델이라 생각한다. 행정의 권유를 당당히 거절하며 지역에 맞는 특산품을 만들어내고, 또 가공까지 성공시킨 마을 주민과 개인의 노력은 우리의 행정의존적인 농촌의 현실에 교훈을 주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특히 업체가 지역 주민의 소득원인 매실의 고가매입을 주도하면서 지역농협 및 다른 구입처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주민 소득 향상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은 마을 기업으로써 갖추어야 할 경영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진 13-1 현장 브리핑



사진 13-2 매실 가공품 판매장



사진 13-3 매실 농장



사진 13-4 히비키노사토 내 휴식공간

●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마을기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이곳이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시작되었거나, 성장과정에서 의도가 변질되었다면 이런 성공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과 그들과 함께하는 대표. 이것이 히비키노 사토의 성공정신이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에 지역을 맡기는 것이 아닌 주민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노력해나가는 모습은 우리의 농촌이 지향해야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 임○○ 의원

## 1. 주민이 하나되는 농촌의 미래

장성군의회의원 김 ○ ○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주민과 함께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갔던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에 언제나 함께해준 지역주민들과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고자하는 노력은 새로운 싹을 틔운 것도, 또 발전하지 못하고 잊혀진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수에서 성공적으로 이뤄낸 마을과 기업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해왔던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지역의 관광산업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어 지금의 커다란 모습을 갖춘 것을 보며 더욱더 노력하고 작은 것에 실망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는 내 자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주민에 대한 교육과 문화적 지원은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공민관, 그리고 교류관 등 여러 시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은 도·농간의 교류와 지역내의 교류, 그리고 지역민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들은 지역민의 의식을 바꾸고, 앞으로 만들어가야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티브를 제공해 주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생각보다 주민들에 개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

금도 주민들에게 개방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형태보다 더 나아가, 정말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민에 가까운 시설의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연수 지역을 이동하며, 그리고 연수를 마친 저녁시간,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걱정은 안고 지금의 직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장성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이끌고 나갈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수가 활성화 되어 많은 직원들이 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러한 연수가 우리 지역민들에게 정말 따뜻한 희망과 꿈을 꿀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연수 소감을 마칩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 생산과 유통이 하나되는 농촌으로

장성군의회의원 임 ○ ○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번 방문 하였고 방문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 연수도 많은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연수는 우리가 생각해 온 정책과 느낌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에 더욱더 기대되는 연수였습니다. 이번 연수에서 가장 큰 성과는 우리 군 농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 점입니다. 일본은 국가의 주도로 많은 직판장을 설립하여 과다한 유통 마진을 없애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가 생존 가능하도록 소포장의 물품의 판매가 가능한 직판 구조를 만듦으로써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든 점은 우리가 배워나가야 할 정책적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판매망의 구축은 어느 누구도 아닌 행정·지역·주민 모두의 힘이 모여야 가능하다는 새로운 숙제와 함께 돌아온 연수였습니다.

연수지를 이동하면서 직원들과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직판장에 대한 한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장성역 앞에 군에서 지원하는 간이직판장을 만들어 소규모 농가들이 물품을 파는 것으로부터 우리군의 직판장문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은 아침에 물건을 직접 납품하고, 직판장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가들의 물품을 판매, 정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를 시작하는 것입니

다. 물론 시작은 많이 어렵고 힘들테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 본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번 연수를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주민의 행복은 그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주민은 아이디어와 의지를, 행정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서로 모아간다면 더 나은 장성군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연수소감을 마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지역과 산업에 상생의 미래를 꿈꾸며

● 의회사무과 행정7급 송 ○ ○

우리가 방문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미래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 현재의 성과를 만들어낸,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만들어진 성과는 지역민의 스스로의 생존에 대한 열망과 지역발전의 노력에서 시작되어, 외부에서의 권유나 지도가 아닌 지역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현재를 개척하여 미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예로 히비키노 사토가 위치하는 오야마 지역의 주민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쌀재배 확대 정책을 거부하고, 지역의 특산품인 매실을 선택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특이하게 생각되었던 점은 지역 살리기가 하나의 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히비키노 사토는 지역의 특산물인 매실을 가공하여 음료, 주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재료는 모두 지역의 매실을 구입하여 사용합니다. 특히 매실의 구입에 있어 지역 농협과의 구매자로서의 경쟁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이 더 나은 가격에 매실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구기노무라의 경우는 고지대에서 재배가 가능한 메밀이라는 작물을 선택하여 특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민은 지속적인 생산량 확대를 통하여 원활한 재료공급에 기여하고, 구기노무라는 지역에서 생산된 메밀을 농협을 통해 구입하여 메밀 체험장 및 판매장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생산 메밀의 50%이상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회사에서

는 볼 수 없는, 저가의 수입 농산물보다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하여 제품화 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희망하는 지역과 회사가 상생하는 지역 친화적 회사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위 두 회사는 유사한 발전과전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개인과 지역의 투자 및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설립하여, 현재는 개인이 투자금을 상환하고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품의 제품화와 관광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회사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은 회사만의 노력만이 아닌 지역의 노력을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회사들은 설립부터 지역의 필요와 협조에 의해 시작되고, 회사에서는 주력 상품으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또 지역에서는 특산품의 생산 및 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회사와 함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는 지역을, 지역은 회사를 키우는 상생의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회사들의 성공과정은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지역 개발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예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도 기업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루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유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 특성에 기초한, 지역에 특화된 기업을 지역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또한 지역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